

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의 밑그림 나왔다.

-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(2023년~2025년) 발표 -

중소벤처기업부 (장관 이영)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「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(2023년~2025년)」을 발표했다.

이번 기본계획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19조의2*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, 민간기업·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.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19조의2 :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계획수립을 위해 '22년 5월 이후 944회의 현장 소통 및 간담회, 전문가·유관기관·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(5.15),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.

이를 기반으로 ① 중소기업 수출주도정책(수출드라이브)을 통한 중소·벤처 50+ 비전 달성, ② 벤처·창업기업(스타트업)의 전방위 지원으로 「세계(글로벌) 창업대국」으로 도약, ③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,

중소기업, 창업·벤처,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글로벌, 디지털, 함께성장,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.

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“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수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,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중소기업정책관실 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순배 (044-204-7420)
		담당자	서기관	임호순 (044-204-7422)

1 검토배경

- 민간·기업·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 마련 필요
- ① 글로벌 진출, 납품대금 제값받기, 제조 디지털화 등을 통해 수출·일자리 성장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고, 중소·벤처 50+ 비전 달성
- ②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인 벤처·스타트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, 대한민국을 「글로벌 창업대국」으로 새롭게 도약
- ③ 디지털 역량으로 무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으로 전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브랜드·상권을 육성하고 촘촘한 안전망 확충
- ④ 정부·기업·협단체 등 강력한 정책원팀으로 현장 현안해결 노력

2 그간 추진성과

중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글로벌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2년 연속 1,100억달러 돌파 (중소기업 직·간접 수출비중 40%+ 달성) ■ 美·중동 등 벤처·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강화 ■ 14년만에 중소기업 업계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■ 3高 위기대응, 혁신기업 성장지원 등을 위한 80조원 규모 금융지원
창업벤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부동산업 제외시 전년대비 11,129개(1.0%) 증가하는 등 창업분위기 유지 ■ 복수의결권 도입,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,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, 스톡 옵션 부여대상 확대 및 벤처확인제 고도화 등 벤처제도 혁신 추진 ■ 초격차 스타트업 1,000+ 프로젝트 등 벤처·스타트업 경쟁력 지원 확대 ■ CES 혁신상 역대 최대(111개사), 사우디 Biban 1~2위 등 글로벌 경쟁력 입증
소상공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23조원 신속 지급 및 손실보상 대상확대 등 지원강화 ■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소비축제 추진(2회) ■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, 카드형 상품권 신규 도입 등 전통시장 고객유입 ■ '헤이, 이태원' 프로젝트를 통해 이태원 상권회복이 점차 가시화

1. 최근 경기동향

- **(수출)**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'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, 5월 누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대비 $\Delta 7.0\%$ 감소한 461억달러
 - * 역대 5월 누계 수출액(억달러) : (1위) '22년 496 (2위) '23년 461 (3위) '21년 456
 - '23년 월별 일평균 수출액 증감률(%) : (2월) $\Delta 6.1$ (3월) $\Delta 12.9$ (4월) $\Delta 1.8$ (5월) 1.4
- **(디지털 전환)** 최근 생성AI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시장 가운데 국내 데이터·AI 등 디지털 벤처는 글로벌 시장 진입이 지연
 - * 디지털 전환 조사결과(중앙회, '23.1월) :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는 40.7점 수준에 불과하고, 특히 글로벌 디지털화 전략 부재는 64.3%에 달하는 수준
- **(벤처투자)** '23년 1~5월 투자액은 1.7조원('20년 동기비 +30.7%), 펀드결성액은 1.5조원(+44.2%)으로 이례적 투자 급증기('21~'22년)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
 - * '23.1~5월 벤처투자액(조원) : ('19) 1.6 \rightarrow ('20) 1.3 \rightarrow ('21) 2.5 \rightarrow ('22) 3.7 \rightarrow ('23) 1.7
- **(유니콘 기업)** 유니콘 기업이 '19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22개사가 출현하였으나, 미국·인도 등 창업 선진국과 격차는 그대로 유지
 - * 유니콘 기업수 변화('19.12 \rightarrow '22.12) : 미국 242 \rightarrow 704개사(2.9배), 인도 24 \rightarrow 85개사(3.5배), 독일 12 \rightarrow 36개사(3.0배), 한국 10 \rightarrow 22개사(2.2배)
- **(소상공인 매출·BSI)** 소업종 카드매출액은 111.3(2019=100)으로 전년동월 대비 9.3%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감소, 체감 BSI는 소폭 하락 ($\Delta 0.7\%$)
 - * 카드매출액 : ('23.3) 140.6 \rightarrow (4) 111.3 / 소상공인 체감 BSI : ('23.2) 56.2 \rightarrow (3) 69.9 \rightarrow (4) 69.4
- **(자영업자수)** 고용원 有 자영업자는 18개월 연속 증가하였고, 전체 자영업자도 19개월 연속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
 - * 고용원 有 자영업자(천명) : ('19.5)1,584 \rightarrow ('20.5)1,384 \rightarrow ('21.5)1,317 \rightarrow ('22.5)1,382 \rightarrow ('23.5)1,435
 - 자영업자(천명) : ('19.5) 5,683 \rightarrow ('20.5) 5,601 \rightarrow ('21.5) 5,587 \rightarrow ('22.5) 5,697 \rightarrow ('23.5) 5,791

2. 정책 추진방향

비전

중소·벤처·소상공인의 저력으로 초일류 국가 진입

전략

디지털 경제 시대,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

【 세부 추진과제 】

<p>【 중소기업 】 중소·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+ 달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글로벌) 중소기업 중심 수출 드라이브 촉진 ▶ (디지털)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고도화 촉진 ▶ (함께성장) 대·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확산 ▶ (위기극복)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
<p>【 창업·벤처 】 세계로 진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글로벌) 글로벌 창업·벤처 생태계 조성 ▶ (디지털) 미래선도 딥테크·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▶ (함께성장) 新벤처·스타트업 모델 성립 ▶ (위기극복) 벤처·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
<p>【 소상공인 】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글로벌)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▶ (디지털)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고도화 ▶ (함께성장) 민간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 ▶ (위기극복) 회복·재기 촉촉한 사회안전망 구축

< 정책기반 조성 >

- ▶ 과감한 규제걸림돌 제거
- ▶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
- ▶ 정책원팀 구축

전략 1 [중소기업] 중소·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+ 달성

1 [글로벌] 중소기업 50+를 위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촉진

- **(해외거점 기반 확충)** 기존 수출BI(12개국, 20개소)를 투자·금융·기술·프로그램 등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개편
 - * 중동지역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(GBC)를 확대하고, 중소벤처 주재관 등 해외 중소기업 지원거점 설치
- **(현지진출 활성화)** K-POP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“K-CON with K-BRAND” 확대 개최
 - * ‘K-브랜드 엑스포’ 등 대형박람회(‘23. 6회 → ‘25. 10회 이상) 및 신시장(중동·미주 등) 중심으로 수출전시회 확대(‘23. 40회 → ‘25. 50회 이상)
- **(글로벌강소기업 1000+)**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「글로벌 강소기업+ 프로젝트(1000개사)」로 통합
 - *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(최대 1억원) 기본 지원, 시중은행(10개사)·정책금융(8개사) 금리·보증료 우대 제공
- **(간접수출기업 자긍심 고취)**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기여도와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격려하기 위해 ‘무명의 수출용사’ 발굴·지원



2 [디지털]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고도화 촉진

- **(디지털 제조혁신 전략 개편)** 그간 정부 주도의 양적확대 전략에서 탈피, 질적 고도화 및 가치사슬·민간역량 기반으로 개편
 - * 전문가, 현장의견 등을 종합하여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 별도발표(예정)
- **(가치사슬 연계)** 공급망내 기업간 제조데이터를 연결·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확대 지원
 - * (B2B) 공장간 제조정보 연결지원, (B2C) 물류·AS 등 서비스까지 데이터 공유를 확대 지원
- **(제조데이터 활용)** AI 분석을 기반 제조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KAMP(제도데이터 플랫폼)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
 - *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(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)

- **(스마트공장 고도화 집중)** 신규고용 등 경영성과가 우수하고, 실시간 제어 등이 가능한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집중 보급
 - * 디지털 트윈, 제조 빅데이터 활용 등 AI 알고리즘이 적용된 미래형 스마트공장 선도형 모델을 확산하고,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확대

3 **[함께성장] 대·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확산**

- **(연동제 현장 안착)** 현장과 적극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 합리적인 하위법령 마련으로 연동제의 조기 안착 추진
 - * 우수사례 홍보 및 인센티브 지급하고, 불공정 행위는 신속히 적발하여 연동제 확산
- **(新동반성장 모델 확산)**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우수기업 중심으로 대·중소기업 '상호 윈윈형' 新동반성장 모델 발굴·확산
 - * 선배기업이 미래세대 중소기업을 위해 교육, 상생, 협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도모
- **(상생결제 확산)**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우수기업 등급제(5등급)를 운영하고 지역 및 유통분야의 상생결제 참여 유도
 - * '20년 527.7조원 → '21년 670.5조원 → '22년 836.7조원(상생결제 누적 기준)
- **(기술보호정책 통합)** 각 부처에 산재한 기술보호 지원정책 등을 맞춤형으로 매칭시키는 범부처 게이트웨이 구축
 - * 지방법원 업무협약(6→19)을 통한 조정제도 연계를 통해 분쟁 장기화 방지 및 조정 성립률 제고

4 **[위기대응]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**

- **(3高 대응 지원)** 고금리·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인한 경영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변화된 금융상품 공급
 - * 고금리 대응을 위해 시중은행 대출에 대해 대출이자 최대 3%p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신규 도입('23년 8,000억원, 중진공)
- **(취약기업 재기지원)** 부실위험에 있거나 폐업 중소기업·소상공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융자·보증 지원
- **(정책금융 접근성 개선)**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편리하고 쉽게 정책자금·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시스템 고도화

전략 2 [창업·벤처] 글로벌 창업·벤처 강국 도약

1 [글로벌화] 세계진출을 지향하는 창업·벤처 생태계 조성

- **(글로벌 혁신특구 조성)**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
 - * 네거티브 규제 특례, 해외실증 지원 등 글로벌 수준의 실증 및 인증체계 구축, 투자·R&D 등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추진
- **(글로벌 펀드 확산)**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「글로벌 펀드」를 '23년 8.6조원 규모까지 확대 조성
 - * 해외 V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자펀드로 투자기업 중 11개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
 - ** 현재 일부 지역에 집중된 조성지역도 중동·유럽 등으로 다변화
- **(해외거점 조성)** 민간 협업형 「K-스타트업 센터」 확대 및 벤처투자센터 구축, 재외공관을 활용한 스타트업 네트워크 강화
 - * KSC(자금·네트워킹·사무공간 지원) 7→8개소(베트남) / 벤처투자센터 3→4개소(유럽)
- **(글로벌·대기업 협업)** 구글·오라클·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여 세계 시장으로의 진입 촉진

2 [디지털]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·신산업 스타트업 육성

- **(초격차프로젝트 본격 추진)**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,000개 이상 선별, 민·관 공동 기술사업화·R&D·글로벌 진출 등 2조원 규모 지원
 - * 10대분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,000억원 규모의 '초격차 펀드' 신설
- **(TIPS 확대)** 先민간투자 → 後정부지원 방식의 TIPS를 확대하고, 바이오·AI 등 딥테크 분야 별도 트랙(기간·규모↑) 신설
 - * ('22) 500개사 → ('23) 720개사 / ** (기간·규모) 2년·5억 → 3년·15억
- **(창업생태계 디지털화)** 가상공간에서의 기업활동과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상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「K-스타버스*」 구축
 - * K-startup과 Metavers(Meta+universe)의 합성어로서 스타트업의 가상공간이란 의미

3

[함께성장] 상생협력 기반 新벤처·스타트업 모델 성립

- **(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 추진)** 벤처기업, 플랫폼,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상생을 실천하는 프로젝트 본격 가동

* 대기업,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이 경영활동을 통해 축적해온 이익·기술·재능 등을 他 경제주체와 공유하고 일반 국민에까지 혜택 제공

주체	프로그램 내용	주체	프로그램 내용
벤처기업	■ 청년 일자리 창출, 후배기업 육성	중소기업	■ 동시·다발적인 사회 공헌 활동
유니콘/플랫폼	■ 소상공인 협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	소상공인	■ 보유 재능을 취약계층과 공유
벤처캐피탈	■ 스타트업 심리압박 치유 심리케어	대중견기업	■ 중소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

- **(사회적 창업가 육성)** 혁신성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동시 추구하는 소셜벤처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하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

* 예비창업패키지 內 별도 트랙(100명), 전용 보증상품 운용(보증료 0.5% 감면, 100% 보증)

- **(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)** 협업을 원하는 스타트업과 대·중견기업간 맞춤형 매칭을 유도하는 플랫폼 신규 조성

* 플랫폼 內 AI 분석을 통해 협업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매칭을 유도하고, 정부는 실증·시제품·최소요건제품 제작 등을 지원

4

[위기대응] 벤처·스타트업 위기 극복을 위한 스케일업

- **(정책금융)** 벤처·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강화

* 초기단계 : 딥테크 분야 중심으로 보증 추가공급, 엔젤·지방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

중기단계 :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자금 확대, 세컨더리펀드 1.5조원 이상 조성

후기단계 :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공동 출자펀드를 확대 조성

- **(벤처확인제도 개선)**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바이오 등 첨단산업, 플랫폼 기반 IT 업종 등에 맞춤형* 평가지표 도입

* (기존) 매출액, 이익 → (추가) 활성이용자·고객전환율(플랫폼), 임상 단계(바이오) 등

- **(「벤처기업법」 상시화)**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'27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몰조항 폐지

전략 3 [소상공인]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 안전망 구축

1 [글로벌]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

- **(브랜드화 및 인재육성)** 유니콘 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'라이콘'으로 브랜드화하고, 콘텐츠 개발역량이 우수한 창의인재 발굴·육성
 - * 로컬콘텐츠 대학, 콘텐츠기반장인대학, 지역창업가 양성프로그램, 직주락형 혁신허브 등 지역 거점별로 생활분야 창의인재 집중 양성
- **(성장단계별 지원)** 아이디어 발굴, 창업 및 사업화 지원, 성장 금융 지원, 상권 단위 육성 등 기업가형 육성단계별 정책지원 강화
 - * (창업단계) 맞춤형 창업 컨설팅, 체험형 창업지원 등, (사업화 단계) 우리동네 펀딩, 민간투자 매칭용자 등, (상권) 상권기획자와 로컬크리에이터의 협업 등
- **(스케일업)** 민간전문 상권기획자, 민간자금 유입체계, 중장기 성장 전략 등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자생력 있는 제도로 발전
 - * 상권기획자 제도 신설, 민간 액셀러레이터 연계, 전용 자금제도 신설, 지역엔젤 모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원제도를 다양화
 - ** '기업가형 소상공인' 정의, 성장지원, 소상공인 혁신허브,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(소상공인법 개정)

2 [디지털]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

- **(빅데이터 플랫폼 구축)** 분산된 상권정보를 종합하여 민간에게 AI 기반 통합 상권정보 제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
 - * (국세청) 상가·부가세 매출, (행정안전부) 주거인구, (국토교통부) 부동산, (여신협회) 신용거래, (통신사) 유동인구, (카드사) 신용카드 매출 등
- **(맞춤형 정책지원)** 지원사업 DB통합, 행정정보 연계 등을 통해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
 - * 업무 프로세스 및 DB를 단일 플랫폼으로 표준화하고, 수요자 편의기능 등을 추가
- **(스마트상점 인식제고)** 업종·단계별 도입 효용성이 높은 스마트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스마트상점 표준모델 인식 제고
 - * 음식점업 단계별 도입 기술 예시 : 스마트오더(기초) → 키오스크(중점) → 서빙로봇(선도)

3

[함께성장] 민간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

- **(新상권세움 프로젝트)** 상권기획부터 상권활성화,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 추진
- **(상권발전 기반구축)** 상권정책 정립·확산을 통한 소상공인 도약과 성장,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**상권활성화 종합계획** 수립
 - * 주요내용(안) : ①지역상권 관리체계 고도화, ②민간 주도 상권 성장 생태계 조성, ③상권 공동체 상생 및 역할 강화, ④지역상권법 기반 상권활성화 제도 확립
- **(민간영역 상생협력)** 디지털 플랫폼, 물류망 등을 활용하는 대기업 및 전통시장 상생협약을 통한 온라인 진출 지원 지속
 - * (카카오) 온라인서비스, 카카오채널 활용교육 (KT) 무료 와이파이 도입, 노후 통신망 정리 등
- **(지역 도시공간 재창조)** 지역 고유자원 활용 창업공간 조성, 중심·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**지역특화재생 年 15곳** 추진
 - * 스토어 브랜드 개발, 특화거리 조성, 상권 컨설팅 등 공간조성·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여 로컬크리에이터 활동공간 구축

4

[위기대응] 회복-폐업-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

- **(유동성 공급)** 경기침체·재난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
- **(에너지 비용경감)** 국제가격 변동성을 감안,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 및 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
 - * 지원대상 : (기존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→ (확대)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
- **(복지강화)** 노란우산공제를 고도화 및 복지·후생사업 추진근거를 마련 등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복지·후생사업 확충
- **(동행축제)** 온·오프라인, 대·중소기업 플랫폼이 함께 하는 대규모 전국민 상생소비 동행축제 연 3회 릴레이 개최
 - * 가치소비를 강화한 상품 발굴, 개막식(전야제) 프로그램 등 특별행사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접점 확대

전략 4 [정책기반] 과감한 규제혁파 및 정책원팀

1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걸림들 제거

- **(핵심규제 발굴)**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인 국내에만 존재하는 '나홀로 규제', 업종·업태별 '골목규제' 등 테마별 규제 발굴·개선
 - * 해외규제·제도 및 규제혁신 사례 조사·분석, 기업인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'나홀로 규제' 발굴·개선
- **(규제예보제)** 중소·소상공인이 신설·강화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 예고하는 '규제예보제' 본격 운영
 - * 주요 신설·강화 규제정보를 중소·소상공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안내하여 현장 의견수렴 → 중소벤처기업부가 업계를 대변하여 과도한 규제 신설·강화 차단
- **(규제자유특구 내실화)** 규제자유특구 계획 내실화를 위한 '후보 특구제도' 도입('23.하), 전략적 특구 지정을 위한 '실증규제 맵' 마련
 - * 특구계획 수립 시 과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특구 후보를 선정하고, 선정된 후보 특구에 대한 컨설팅, 부처협의 등 계획 수립 지원
- **(도전·창의적 R&D환경 조성)** 4차산업 혁명의 도전을 확대하기 위해 R&D 제도를 신청 → 선정 → 수행 → 종료 등 진행단계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대폭 개편

2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원팀 구축

- **(핵심미션 설정)** 본부·지방청·산하 공공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할 중점 과제를 선정·공유하여 쏠부처가 원팀으로 성과창출 기반 구축
 - * 기업·산업·일자리 분야 정례적 정책협의회를 구성(산업통상자원부·공정거래위원회·고용노동부 등)하여 주요 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공고화
- **(상시 소통체계 구축)** 中企 지원정책 정보를 주요 협·단체 및 약 600개 지역 지원기관을 통해 매주 공유하여 기업현장까지 확산 촉진
 - * 월간 중기누리(정책정보 소식지), 유튜브·SNS 홍보 콘텐츠 등 정책정보를 알기 쉽게 제작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거점으로 확산